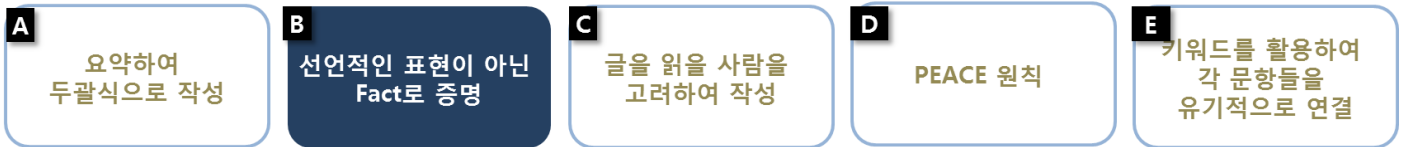


약점 없는 자기소개서 작성의 ABCDE

수 백, 수 천 장의 자기소개서를 짧은 시간 내에 읽어내야 하는 교수님들은 모든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읽어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약대 수험생은 모든 내용을 간결하고 담백하게 써야 하며, 명확하고 차별화된 의미 전달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바바라 민토의 'Logical Thinking'에서 제시한 방법과 이에 덧붙인 저희만의 노하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ABCDE! 즉, 5가지가 있습니다.



[B. 선언적인 표현이 아닌 Fact로 증명]

“저의 장점은 리더쉽입니다.” 라고 글을 시작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나 경험 혹은 스펙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수험생들이 알게 모르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도 “저는 착합니다. 저는 성실합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보다는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특히 자소서 이외의 학점이나 연구 경험 등이 빈약할 때, 근거 없는 자기 주장, 자랑만 늘어놓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러한 자소서는 아무리 필력이 뛰어난 사람이 쓴다 해도 좋은 인상을 주기 힘들며, 설령 운 좋게 면접관 앞에서게 된다 해도 근거와 관련된 질문을 집요하게 받게 되어 면접시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fact 를 제시할 때에도 이 fact 를 교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제시한 이 fact, 스펙이 교수님에게 어필 할 수 있을까?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다른 근거는 없나?

Don't	Do
저는 항상 밝은 기운이 감도는 것 같다는 말을 대학교 내내 주위로부터 들었습니다. 상대방을 마주할 때 언제나 밝게 웃으면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때문에 학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친구들이 가진 개개인의 장점을 잘 발견합니다. 때문에 저는 친구가 그 장점들을 표출 할 수 있도록 지지와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저는 환자들에게 잠시나마 밝은 미소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따뜻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학부 2학년 때 부터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불우이웃 돕기 베희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도 없고, 베희시장에 팔 물건을 내어주는 이도 없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저의 중고등학교, 대학 선후배 등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저의 요청을 받은 100여명의 친구들, 선후배들이 동참해 주어 베희시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A
요약하여
두괄식으로 작성

B
선언적인 표현이 아닌
Fact로 증명

C
글을 읽을 사람을
고려하여 작성

D
PEACE 원칙

E
키워드를 활용하여
각 문항들을
유기적으로 연결

[C.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여 작성]

독자를 고려한다는 것은, 좁게는 내 글을 읽을 사람과 나와의 관계; 즉 지원자와 교수 를 고려하는 것이고, 넓게는 내 글을 읽을 때 의문을 가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상 경력이나 여러 가지 스펙을 제시할 때는 그것의 이름만 쓰는 것 보다는 이것이 얼마나 유명하고 공신력이 있으며, 이것을 성취한 것이 얼마나 의미있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곁들여야 합니다.

또한, 이야기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모순 없이 명확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열 가지 장점이 있어도 명확한 개연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글 전체가 산만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연성이 떨어지는 내용은 철저히 논리적으로 뒷받침 하든지 아니면 아예 쓰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